

[사회]



영광군은 7일 백수읍의 한 염전 저수지 개펄에 매립된 2천개의 페타이어를 수거했다. 검은 페타이어 전량을 전문업체를 통해 폐기 처분할 예정이다.

전남대 로스쿨 합격자 19명 미등락

13·14일 추가 등록 뒤, 13~14일 추가 등록을 받기로 했다. 전남대 관계자는 "복수지원이 가능한 만큼 미 등락자는 다 대학에 중복으로 합격한 것으로 보인다"며 "애초 예상했던 것보다 등록률이 높은 편이다"고 말했다.

일부 고검·지검장 사퇴 권고

법무부, 내달 검찰 인사 인적 쇄신

법무부가 오는 2월 검찰 정거인사를 앞두고 고검장과 일부 지검장을 대상으로 자진 사퇴를 권고하는 등 인적 쇄신을 단행할 전망이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집권 2년차인 이명박 정부의 개혁 정책 추진을 위한 사회적합과 이를 담당할 검찰 조직의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대폭적인 검찰의 '쇄신 인사'를 단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고검장들이 후배들을 위한 '용퇴(勇退)'형식을 빌려 자진 사퇴할 경우 현재 비어 있는 검사장 자리 2곳(대검찰청 형사부장, 대전고검 차장)을 포함해 최대 10명까지 검사장 승진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법무부에서 고검장급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용퇴 형식의) 사표를 받고 있고, 이미 사표를 낸 사람도 있다"며 "일부 검사장도 선별 사표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천일염전 저수지 개펄 페타이어 2천개 묻혀

영광군 백수읍... 업체 알고도 방치 의혹

영광군 백수읍의 한 염전 저수지 개펄에 페타이어 수천개가 파묻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영광군에 따르면 백수읍 모 염전의 천일염 생산을 위해 바닷물을 저장하는 25ha 염전 저수지 개펄 밑에 페타이어가 묻혀 있는 것을 확인, 지난 해 12월부터 수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들 페타이어는 1980년대 저수지의 제방을 파도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쌓아뒀던 것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바닥에 가라앉아 개펄 밑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영광군은 설명했다. 지난 2005년 염전 관련법이 바뀌면서 페타이어를 함부로 재사용하지 못하게 되는데 개펄에서 수거한 페타이어 가운데 일부는 1990년대 이후 생산된 제품이 있어 해당 업체가 개펄에 페타이어가 묻힌 사실을 알고도 방치하지 않았느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영광군은 지난 해 3월 염관리법 개정으로 인해 천일염이 광물에서 식품으로 분류됨에 따라 관내 124개 염전 및 염전 저수지 등에 대한 일체 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페타이어 등 인체 유해 논란이 일수 있는 자재 사용 여부에 대한 점검에 주력해 이 업체 저수지에 매립된 페타이어를 적발했다. 영광군은 이날 2천개의 페타이어를 수거했으며, 8일까지 수거작업을 마친 뒤 전문업체를 통해 폐기처분할 예정이다. 최근 천일염은 관련법 개정에 따라 식품으로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정제염보다 건강상 유효성이 뛰어난 식품으로 알려지면서 전남 서해안 지역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염전 저수지의 페타이어 매립이 전남 천일염의 이미지에 타격을 주는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일고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수거한 페타이어를 조속히 전량 폐기할 예정"이라며 "소비자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해당 염전의 토양 성분 조사를 의뢰하는 한편 앞으로 천일염의 위생 상태를 강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염산면과 백수읍 일대에서 생산되는 영광군의 천일염은 매년 4만2천여 t 가량으로 인근 신안군에 이어 전국 2위의 생산량을 보이고 있다. /영광=조익상기자 ischo@

식품으로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정제염보다 건강상 유효성이 뛰어난 식품으로 알려지면서 전남 서해안 지역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염전 저수지의 페타이어 매립이 전남 천일염의 이미지에 타격을 주는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일고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수거한 페타이어를 조속히 전량 폐기할 예정"이라며 "소비자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해당 염전의 토양 성분 조사를 의뢰하는 한편 앞으로 천일염의 위생 상태를 강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염산면과 백수읍 일대에서 생산되는 영광군의 천일염은 매년 4만2천여 t 가량으로 인근 신안군에 이어 전국 2위의 생산량을 보이고 있다. /영광=조익상기자 ischo@

오늘 날씨 해돋이 07시 41분 해질 17시 37분 달돋이 14시 18분 달질 04시 29분

햇살이 그리워 대체로 맑다가 오후들어 구름이 많아지겠다. 광주: 구름 조금 -3/7C, 목포: 구름 많음 -2/6C, 여수: 구름 조금 0/8C, 완도: 구름 많음 -1/7C, 구례: 구름 조금 -6/8C, 해남: 구름 많음 -4/7C, 장흥: 구름 많음 -4/8C, 고흥: 구름 조금 -4/9C, 순천: 구름 조금 -1/9C, 영광: 구름 많음 -4/5C, 진도: 구름 많음 -2/7C, 전주: 구름 많음 -6/5C, 남원: 구름 조금 -8/7C, 옥산도: 구름 많음 4/6C

Table with 5 columns: 바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Rows include 서해 남부 앞바다, 남해 서부 앞바다.

주간날씨 기상인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일 날씨, 최저/최고

'화려한 휴가' 세트장 불 건축물 일부 소실 피해

7일 오후 3시20분께 광주시 북구 오동동의 '화려한 휴가' 영화 세트장에서 불이 나 세트 50m를 태우고 400여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김정호기자 khh@kwangju.co.kr

"고속도로 통행료 신용카드도 됩니다"

도로공사, 3월 25일부터 한국도로공사는 국내 8개 신용카드사와 오는 3월 25일부터 하이패스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 통행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고 7일 밝혔다. 현행 고속도로 통행료 지급 수단은 현금과 고속도로카드, 선불 충전식 전자카드만 가능하다.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지 않는 차량은 일반 차에서 사용할 수 있고, 서울외곽순환도로는 요금소 외부에 설치된 단말기에 신용카드를 접촉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연합뉴스

휴대전화로 열차표 예매·발권 'OK'

코레일 '모바일 승차권' 코레일은 오는 13일부터 휴대전화로 철도승차권 예매와 발권까지 모두 처리되는 '모바일 승차권'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에 철도승차권 예약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열차의 좌석현황 조회부터 예매, 발권까지 모두 처리돼 역에서 줄을 서지 않고 휴대전화에 저장된 열차정보로 바로 열차를 탈 수 있다. 3월 말까지는 KTF 이용고객이 우선 이용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모든 이동통신사로 확대된다. 코레일은 2월 말까지 모바일 승차권 이용시 1차에 한해 5%의 할인혜택을 줄 계획인데 주말 서울-부산을 KTX로 갈 경우 2천6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코레일 홈페이지(www.korail.com)를 참조하거나 철도고객센터(1544-7788, 1588-7788)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연합뉴스

탐산사지 금동여래 입상 전남도 문화재자료 지정

장흥군 대덕읍 천관산 탐산사지 금동여래입상(사진)이 7일 전남도 문화재 자료 제270호로 지정됐다. 높이가 7.5cm인 탐산사지 금동여래입상의 외형은 7세기 삼국시대의 전통적인 양식을 계승한 것으로 계란형의 얼굴과 상투를 쓴 머리모양, 오른손은 올리고 왼손은 내린 자세 등이 모두 7~8세기 양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정홍=김용기기자 kykim@



장흥군은 이번에 금동여래입상이 문화재 자료로 지정돼 국가 지정 문화재 16점(국보 2, 보물 9, 천연기념물 3, 중요무형문화재 1, 중요민속문화재 1), 도지정 문화재 54점(천연기념물 9, 유형문화재 25, 민속자료 6, 문화재 자료 12, 근대문화재 2) 등 총 70건의 지정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

임여자금 부정 대출 완도해경, 30대 구속

완도해양경찰은 7일 '양식어업권 행사계약서'를 위조해 완도수협으로부터 어업인 정책자금인 '영여자금'을 대출받은 김모(39)씨에 대해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2005년과 2006년 각각 2차례에 걸쳐 장인이 가진 양식어업권 행사계약서를 부인 명의로 위조, 수협으로부터 1억4천만원을 부정 대출받은 혐의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

SAFA SAFETY VEHICLE advertisement featuring a car seat and a car interior view. Text includes 'SAFA SAFETY VEHICLE', '안전 어디서든 조이케겔만 있으면 피로는 확 풀어집니다.', and '조이케겔 SF-01'.